

수출지원 강화 및 효율적 사업 수행을 위한 방산수출 지원사업 개편방안에 대한 연구

김영강^{1*}, 박정운^{1,2}, 이다현^{1,3}
¹국방기술진흥연구소, ²광운대학교, ³부산대학교

A Study on the Defense export support programs reforming plan to strengthen support and improve efficiency

YoungKang Kim^{1*}, JeongWoon Park^{1,2}, DaHyeon Lee^{1,3}
¹Korea Research Institute for defense Technology planning and advancement
²Kwangwoon University
³Pusan National University

요약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은 6.25 전쟁 당시 소총 한 자루도 스스로 제작하지 못하는 수준이었으나, 1970년 방위산업에 진입한 이후 방산수출 세계 8위로 도약하였고, 2022년에는 폴란드 등 수출에 힘입어 역대 최고 수준인 170억 불 수출을 달성하게 되었다. 전투기 1대의 수출은 국산 중형차 1,000대를 수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등 방산수출의 파급효과는 상당하다. 이에 정부는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106번)로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 마련'을 내세우는 등 방산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방위사업청 또한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등 수출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지원 예산 또한 지속 증액되는 추세이나, 일부 사업간 유사성이 식별되는 등 정책적 비효율적 요소가 남아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지원사업 간 유사성 및 한계점 등을 분석하였고, 수출지원 강화 및 효율적 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업별 통합 및 지원 확대 방안 등 전반적인 방산수출 지원 제도의 개편방안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e Republic of Korea's defense industry was at a level where it could not produce even a single rifle during the Korean War. On the other hand, after entering the defense industry in the 1970s, it jumped to eighth place in the world in defense exports, and in 2022, exports reached an all-time high of \$17 billion owing to exports to Poland and other countries. Considering that the export of one fighter jet has the same effect as exporting 1,000 domestically produced mid-size cars, the ripple effect of defense exports is significant. Accordingly, the government is trying to expand defense industry exports by setting 'establishing a virtuous cycle structure of cutting-edge power construction and expansion of defense industry exports' as one of the 120 national tasks.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also operates an export support project. Accordingly, the support budget also continues to increase, but there are policy inefficiencies, such as similarities between some projects. Accordingly, this study analyzed the similarities and limitations between support projects and proposed a plan to reform the overall defense industry export support system, including measures to integrate each project and expand support to strengthen export support and carry out projects efficiently.

Keywords : Modification, Export, Defense, Defense Industry, Defense Export

*Corresponding Author : YoungKang Kim(Korea Research Institute for defense Technology planning and advancement)
email: youngkk72@krit.re.kr

Received February 2, 2024

Revised March 4, 2024

Accepted April 5, 2024

Published April 30, 2024

1. 서론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은 6.25. 전쟁 당시 소총 한 자루도 스스로 제작하지 못하는 수준이었으나, 1970년 방위산업에 진입한 이후 최근에는 2017년~2021년 177%의 방산수출 증가율을 보이며 방산수출 세계 8위로 도약하게 되었고, 2022년에는 FA-50 등 폴란드 수출에 힘입어 역대 최고 수준인 170억 불 수준의 방산수출을 달성하게 되었다[1,2]. 전투기 1대 수출은 국산 중형차 1,000대를 수출하는 효과에 버금가는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방산수출은 상당한 산업적 파급효과를 불러온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3].

이에 정부는 120대 국정과제 106번으로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 마련'을 선정하는 등 방산시장의 내수한계 극복을 위한 산업구조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4].

방위사업청 또한 방산 수출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2012년 방위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5]를 시작으로 2013-2017 방위산업육성 기본계획[6] 수립하였고, 이를 근거로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등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K-방산수출 확대를 위한 통합방산수출협의체(One Stop One Team)을 운영하는 등 우리 방산의 수출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7]. 이에 방산수출 지원 예산은 '19년부터 지속적으로 대폭 증가하고 있으나, 부품국산화 및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등 일부 R&D 사업 및 마케팅 지원사업간 유사성이 식별되는 등 정책적, 행정적 비효율 요소가 남아있어 정부기관 및 기업의 행정소요 등 자원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기존에 방산수출 지원사업 개편에 관하여 연구한 사례[8]가 있기는 하나, 해당 연구에서는 수출형 R&D 지원사업의 사업관리 기관이 비교적 열악한 자원(인력 등)을 보유하고있음을 고려하였을 때, 전문기관으로서의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개선방안 위주로 기술되었다. 하지만 본 연구는 더 나아가서 수출형 R&D 사업 절차 등 실무 위주가 아니라, 정부 및 사업관리 전문기관과 실제 지원 수혜를 받는 기업 입장에서 고려한 현 수출지원 제도(R&D 사업 및 마케팅 사업 등) 전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다룰 예정이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방위사업청의 수출 지원사업별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에 대하여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방산수출 지원 강화 및 효율적 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제도적 개편방안에 대하여 제언하고자 한다.

2. 방산수출 지원사업 개요 및 분석

2.1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2.1.1 개요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이하 '개조개발 사업')은 방위사업청(현 국제협력관) 소관으로 2014년부터 시행된 사업이다. 방위산업발전법 제15조에 따라 방산업체 등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무기체계 또는 구성품(부품 포함)의 개조를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하며, 최장 5년의 기간 내에서 총 사업비 기준 500억 원 미만의 과제비를 기업 유형별 비율(중소기업 75%, 중견기업 60%, 대기업 50%, 그 밖의 경우 50%)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대기업이 단독 참여하여 총 사업비 약 500억 원의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250억 원 미만의 정부지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 과제는 수출 증진을 위한 것으로서, ① 국내 조달계약 체결 실적이 있는 무기체계 또는 구성품(부품 포함), ② 연구개발 중이거나 연구개발이 완료된 무기체계 또는 구성품(부품 포함), ③ 수출 계약 체결 실적이 있는 무기체계 또는 구성품(부품 포함), 이 세 가지 조건 중 한 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무기체계 또는 구성품(부품 포함)의 개조를 위한 기술개발이며, 개발 중이거나 이미 개발된 무기체계의 일부 성능, 기능, 품질, 기술보호기법 적용 등 형상 또는 규격에 변경을 가하는 것으로서 성능 개량을 포함한다.

주관기업으로 참여 가능한 업체는 ① 개조개발 대상 무기체계의 국내 조달계약 체결 실적이 있는 업체, ② 제1호 업체와 해당 무기체계 관련 하도급계약 체결 실적이 있는 업체, ③ 개조개발 대상 무기체계 또는 구성품(부품



Fig. 1. Towed Array Sonar System for Export[10]

포함)의 개발업체 또는 방산업체, ④ 개조개발 대상 무기체계 또는 구성품(부품 포함)의 수출계약 체결 실적이 있는 업체 중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9].

Fig. 1은 실제 지원 예시인 STX엔진의 '수출형 예인 음탐기체계 개조개발' 과제다[10].

2.1.2 분석

현재 개조개발 사업의 과제선정 평가 기준은 단기적으로 성과창출이 가능한 과제가 선정에 유리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하지만 수출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단기적 성과만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 명확한 수요가 없지만 드론 탐지 능력 향상 등 중장기적 무기체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제적 지원이 필요한 과제, 그리고 글로벌 수요와 틈새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선제적·전략적으로 개발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무기체계의 구성품 개조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출연계 부품 국산화 지원사업 및 글로벌 방위산업 강소기업 육성사업과 지원 대상이 유사하며, 지원대상 과제가 연구개발 중이거나 연구개발이 완료된 무기체계의 개조개발에 한정되어 Redback 장갑차와 같이 수출을 목적으로 한 신규 무기체계 개발 지원이 제한되는 등 글로벌 수요에 걸맞은 전략적 수출성과 창출이 제한된다.

2.2 수출연계 부품 국산화 지원사업

2.2.1 개요

수출연계 부품 국산화 지원사업(이하 '수출연계 국산화 사업')은 방위사업청(현 방위산업진흥국) 소관으로 2021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방위산업발전법 제9조 및 제13조에 따라 방산분야 우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부품 국산화개발 비용과 협력기관의 기술지원 및 시험평가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인 무기체계 부품 국산화 개발지원 사업의 세부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며, 최장 5년의 기간 내에서 최대 100억 원까지 정부지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 과제는 방위사업청의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개발 관리규정 제13조제1항과 제14조 요구조건에 부합되는 품목 중에서 체계업체가 무기체계 수출을 위해 제출한 수요에 기반한 무기체계의 E/L 대상 부품 또는 E/L 지정 가능성이 높은 부품으로 ① 체계개발, 양산, 운용유지 단계의 무기체계 중 수출 중이거나 수출 예정 또는 수출가능성이 높은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국외도입 부품,

또는 ② 체계개발, 양산, 운용유지 단계의 무기체계 중 수출 중이거나 수출 예정 또는 수출가능성이 높은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기술협력생산 부품의 부품 개발을 대상으로 한다.

중소기업이 주관기업으로 참여함이 원칙이나,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 과제의 요구 시설 및 장비,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을 주관기업으로 할 수 있다[11].

2.2.2 분석

수출연계 국산화 사업은 국내 수요가 확정되지 않은 품목은 과제화가 제한되고, 과제당 정부지원금 한도(100억 원)가 낮게 설정되어 있어 대규모 과제 지원이 제한된다. 또한, 무기체계의 구성품(부품)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개조개발 사업 또는 글로벌 방위산업 강소기업 육성사업을 통한 지원이 가능하다.

2.3 글로벌 방위산업 강소기업 육성사업

2.3.1 개요

글로벌 방위산업 강소기업 육성사업(이하 '강소기업 육성사업')은 방위사업청(방위산업진흥국) 소관으로 2014년부터 시행되었다. 방위산업발전법 제10조 등에 따라 방산분야에서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제품·부품개발, 시험평가, 컨설팅, 마케팅 등을 지원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을 말하며, 최장 3년의 기간 내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정부지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개발 완료 후 전문기관과의 최대 2년의 추가 협약을 통해 수출 마케팅 등 시장개척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기업이 지원 받을 수 있는 시장개척비용은 최대 6억 원 이내이며, 이미 지원 받은 개발비와 시장개척비의 합이 30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지원대상 과제는 무기체계 적용 및 수출이 가능한 기술 또는 제품(부품 포함)의 연구개발이며, ① 기술개발 수준의 고도성, ② 기술개발 시 타 무기체계로의 응용 가능성, ③ 중소기업의 기술 향상에 대한 파급효과, 민수분야로의 기술이전 가능성, ④ 매출액 증가 등 경제적 파급효과 및 사업화 등 결과의 활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주관기업으로 참여 가능한 업체는 성장잠재력이 높고 수출경쟁력 있는 방산분야 중소기업 중 ①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이 2% 이상인 기업, ②

INNO-BIZ, 경영혁신형,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인증된 기업 중 한 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기업이다[11].

Fig. 2는 실제 지원 예시인 네비웍스의 ‘VR 시뮬레이터 플랫폼’ 과제다.



Fig. 2. VR Simulator platform

2.3.2 분석

강소기업 육성사업은 개조개발 사업 및 수출연계 국산화 사업과 지원 대상이 유사하며, 기업육성과 수출지원이라는 두 가지 중 어느 하나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 등 정책성이 모호하고, 일회성 개발과제 지원에 따라 기업육성 및 후속 기술개발이 제한된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정부지원금 한도에 마케팅 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마케팅 지원 소요와 실효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수출을 위한 마케팅은 유망수출품목발굴 지원사업 등 타 사업을 통해 지원이 가능하다.

2.4 유망수출품목발굴 지원사업

2.4.1 개요

유망수출품목발굴 지원사업(이하 ‘유망품목발굴 사업’)은 2019년에 방위사업청(국제협력관) 소관으로 시행되었으며, 해외 방산시장 진입 촉진 및 시장진출 확대를 위해 해외 마케팅 등을 지원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춘 방산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대 3,000만 원까지 정부지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첫째, 해외바이어발굴 지원사업을 통해 전문기관은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① 해외 바이어 초청 상담회 및 설명회 개최, ② 무역 촉진단 파견, ③ 해외진출기반 구축 및 바이어 발굴 전략 세미나 개최, ④ 그 밖에 바이어 발굴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의 수출 마케팅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둘째, 해외인증획득 지원사업이 있다. 인증획득 지원 대상은 방산중소기업이 글로벌 방산업체의 부품 공급망 진입 등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요구되는 국제규격, 지역규격, 외국국가규격, 단체규격(이하 “해외인증”이라 한다)이며, 참여기업의 해외인증획득에 소요되는 제품 시험·인증 비용과 컨설팅 기관 과제수행 대행료, 인증 심사과정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공장심사 등의 비용을 지급 대상으로 한다.

셋째, 수출컨설팅 지원사업이다. 본 사업을 통해 전문기관은 참여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위해 ① 해외 목표시장 선정 및 경쟁제품 동향 조사, ② 파트너·바이어 발굴 및 실태 조사, ③ 해외 진출 및 수출 마케팅 전략 수립, ④ 수출 목적의 계약/법률 문서 번역 및 통역 지원, ⑤ 계약서, 통관/선적 필요 서류 등 수출 목적의 서류 작성, ⑥ 법률 자문, 세무 자문, 해외현지 분쟁 해결 등 수출 목적의 법무·세무·회계 자문, ⑦ 기타 수출 실무 애로 사항 해결과 같은 컨설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넷째, 해외 성능시험 지원사업이다. 본 사업을 통해 전문기관은 수출대상국가 또는 글로벌 방산업체 요청에 따라 참여기업의 현지 진출을 위한 해외 성능시험을 지원할 수 있으며, 참여기업이 생산 또는 연구개발하는 ① 방위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지정된 방산물자, ②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의 별표3(군용물자)에 해당되는 품목, ③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의 별표2(이중용도품목)에 해당되는 전략물자 중 수입국 정부가 군사목적용으로 사용할 품목에 해당하는 품목 중에서 해외 성능시험 지원을 지원할 수 있다. 참여기업의 해외성능시험을 위해 소요되는 ① 성능시험 제품 운송비, ② 장비 및 평가인원 보험료, ③ 성능시험을 위한 유류비·탄약비, ④ 성능시험을 위한 장소 사용료, ⑤ 기타 해외성능시험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단, 성능시험을 위해 신규 구매, 제작하는 장비의 가격은 제외한다.) 등의 비용을 지급대상으로 한다[9].

2.4.2 분석

유망품목발굴 사업은 사업 명칭과 세부 사업들의 지원 내용이 불일치하여 이름만으로는 본 사업에 대한 직관적 이해가 쉽지 않으며, 과제당 지원한도(3,000만 원)는 실제 소요 비용 대비 매우 낮은 수준이고, 대·중견기업은 지원소요가 발생하더라도 참여가 불가하다. 또한, 해외 성능시험 지원사업의 경우는 해외 바이어를 국내에 초청하여 시험하는 경우 지원이 불가하다는 점 등 대체적으로 지원 실효성이 낮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 대부분

의 컨설팅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수출 컨설팅 지원은 유망품목발굴 사업을 통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변경되어서 컨설팅 지원을 두 개의 사업을 통해 추진하고 있다는 비효율적 요소가 남아있다.

2.5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2.5.1 개요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이하 '컨설팅 사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제6조와 방위산업발전법 제10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의 방위산업 진입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방산 전문가의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통해 기술력을 갖춘 민간 중소기업의 방산 분야 참여를 확대하고, 방산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을 말하며, 최대 3,000만 원 이내로 정부지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 과제는 기업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컨설턴트로부터 공정개선, 기술개발, 마케팅, 사업전환, 법률상담, 원가개선 등 기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하여 자문을 얻는 활동이며, ① 기술컨설팅, ② 경영컨설팅, 법률컨설팅, 행정컨설팅으로 구분한다.

지원대상 기업은 방산 중소기업 또는 방산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중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① 방산분야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는 "방산 중소기업",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③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④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⑤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제품으로 인증받은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⑥ 전력기술관리법 부칙 제2조에 따라 고시된 "신기술을 개발·개량한 중소기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2].

2.5.2 분석

컨설팅 사업은 최초 시행 당시 수출 컨설팅을 포함하여 지원하였으나, 2019년 유망품목발굴 사업이 신설되며 수출 컨설팅은 더 이상 본 사업을 통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이에 따라 수출 또는 내수 목적 구분에 따라 컨설팅 지원대상 사업이 구분되는 비효율적 행정소요를 초래하고 있다.

2.6 DQ마크 인증제도

2.6.1 개요

DQ마크 인증제도는 방위산업발전법 제15조와 군수품관리법 제2조에 따른 군수품의 수출 진흥을 위하여 수출잠재력이 우수한 제품에 DQ마크를 부여하여 기술력, 품질 등을 인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방위사업청장은 품질인증에 대한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DQ마크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DQ마크인증에 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현재는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이 그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DQ마크 인증 대상은 국내기업이 생산하여 수출하려는 방산물자등과 군수품으로서 수출용으로 개조·개발된 제품을 포함하며, 국방규격, 구매국의 요구사항 또는 업체규격 등 제품심사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 제품으로 하며,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4년이다[13].

Fig. 3은 실제 인증 예시인 한국씨엔오테크의 '연습용 수류탄, 40mm 연습유탄' 제품이다[14].



Fig. 3. Training hand grenade

2.6.2 분석

DQ마크 인증과 관련하여 인증업무는 기품원이 담당하고, 인증제품의 홍보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이하 '국기연')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점은 사업추진계획 수립 및 성과 공유 등 업무상 비효율적인 행정소요를 초래하고 있다.

2.7 수출용 민간개발장비 성능시험 지원

2.7.1 개요

수출용 민간개발장비 성능시험 지원 업무는 방위산업발전법 제18조제1항제5호 및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71조 및 제172조에 따라 민간업체가 수출을 목적으로 개발한 무기체계, 무기체계의 구성품 또는 전력지원체계의 개발단계에서 성능시험을 위해 군 시설·장비·인력 등을 요청함에 따라 방위사업청, 국기연, 신속원 등이 민간업체로부터 수탁받아 지원하는 업무를 말하며, 지원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업체는 성능시험 지원요청서를 신속원에 제출하고, 신속원은 이를 검토 후 방위사업청에 성능시험을 의뢰한다.

둘째, 방위사업청(국제협력관)은 지원 필요성을 검토하고, 지원이 필요한 경우 국기연에 지원 가능성 검토를 요청하며, 국기연은 지원 가능성에 대한 검토의견을 방위사업청(방위산업진흥국)에 제출한다.

셋째, 방위사업청(국제협력관)은 군 지원 필요사항이 있는 경우 군과 협조하여 지원 여부를 국기연으로 통보하고, 국기연은 성능시험 지원계획을 작성하여 군에 통보한다.

마지막으로, 국기연은 성능시험 지원을 위해 민간업체와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한다[15].

2.7.2 분석

앞서 언급한 지원절차를 살펴보면, 본 업무의 진행을 위해서는 방위사업청의 국제협력관, 방위산업진흥국, 국기연, 신속원 등 기관(부서)을 거쳐야하고, 특히 지원필요성 등 검토기관과 계약체결 등 지원 기관이 분리되어 있어 실제 지원신청부터 계약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등 비효율적 요소가 존재한다.

3. 방산수출 지원사업 개편방안

3.1 수출형 개발 지원사업 확대 및 통·폐합

지원사업별 분석을 통해 수출형 개발 지원사업(개조개발 사업, 강소기업 육성사업, 수출연계 국산화 사업)을 적용 대상 무기체계 구분(국내·국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편하고 명칭을 변경하는 것을 제안한다.

첫째, 타 사업과 지원대상이 중복되는 수출연계 국산화 사업은 폐지 후 기존 개조개발 사업과 통합한다.

둘째, 기존 개조개발 사업의 명칭을 ‘무기체계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으로 변경하고, 지원대상 과제는 우리 무기체계와 방산업체 등의 수출 경쟁력 향상을 위해 ‘수출을 위한 국내 무기체계의 개조개발 또는 신규 무기체계 개발’로 한다. 본 사업의 상세 지원내용 등은 Table 1과 같다.

셋째, 기존 강소기업 육성사업의 명칭을 ‘방산 중소기업 글로벌 역량 강화 지원사업’으로 변경하고, 지원대상은 우리 방위산업 중소기업들의 글로벌 부품공급망 진입 지원을 위하여 해외 무기체계에 적용 가능한 기술 또는 제품으로 한정한다. 또한, 기존 강소기업 육성사업에 포함된 마케팅 지원 비용(시장개척비)은 타 마케팅 사업 등으로 지원 가능하므로, 지원범위에서 제외한다. 본 사업의 상세 지원내용 등은 Table 2과 같다.

Table 2. Support program for strengthening global capabilities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in the defense industry

Factor	Details
Purpose	Support for entry into global supply chain for small and medium-sized defense companies
Target	Technology applicable to overseas weapon systems
Companies that can participate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upport fund	Less than 3 billion won

3.2 마케팅 및 컨설팅 지원사업 세부 조정

지원사업별 분석을 통해 마케팅 및 컨설팅 지원사업(강소기업 육성사업, 유망품목발굴 사업, 컨설팅 사업)을 다음과 같이 주요 기능에 따라 개편하고, 명칭 변경 및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제안한다.

첫째, 유망품목발굴 사업의 지원대상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추가하고, 지원한도를 3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하며 국내에 바이어를 초청해서 성능시험하는 경우 또한 지원범위에 포함한다. 또한, 사업 명칭과 세부 지원

Table 1. Support program for strengthening global competitiveness of weapon system

Factor	Details
Purpose	Support for product or technology development for export, including modifications
Target	Weapon systems for export
Companies that can participate	Regardless of company size
Support fund	Under 37.5 billion won

Table 3. Support program for global marketing

Factor	Details
Purpose	strengthening global marketing capabilities of defense companies
Target	Performance demonstration, Finding buyers, Overseas certification
Companies that can participate	Regardless of company size
Support fund	Less than 100 million won

내용의 일치화를 위해 사업 명칭을 ‘글로벌 마케팅 지원 사업’으로 변경한다. 본 사업의 상세 지원내용 등은 Table 3과 같다.

둘째, 수출 컨설팅 또한 컨설팅 지원은 컨설팅 사업의 지원범위로 일원화한다. 이 경우 사업 명칭 변경은 불필요하다. 본 사업의 상세 지원내용 등은 Table 4과 같다.

Table 4. Support program for Consulting

Factor	Details
Purpose	Expanding participation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in the defense industry
Target	Consulting(include export purpose)
Companies that can participate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upport fund	Less than 100 million won

3.3 DQ마크 인증제도 전담기관 일원화

DQ마크 인증제도는 인증업무와 홍보업무를 2개의 기관이 분리해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인증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기품원에서 모두 수행한다면 성과분석과 연계한 인증업무 개선방안 도출 등이 용이해지기 때문에, 보다 효과적·효율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 것이다. 업무별 담당기관 개선안은 Table 5와 같다.

Table 5. Organization in charge of each task for DQ

Duty	Organization in charge	
	Before	After(Reform)
Certify	DTaQ	DTaQ
Promote	KRIT	DTaQ

3.4 수출형 민간개발장비 성능시험 지원 전담기관 일원화

수출형 민간개발장비 성능시험 지원 업무 역시 실제 시험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 Table 6과 같이 현재 신속원(신청서 접수 및 검토)과 국기연(군 지원 가능성 검토 및 계약 체결 등)으로 나누어 있는 업무를 신속획득연구개발 및 업체주관 연구개발 지원 등을 위해 설립된 신속원이 전담하여 수행하는, 사업관리 기관을 일원화하는 방법을 적용한다면 보다 지원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신속한 지원업무 추진이 가능해질 것이고, 추후 지원업체의 성과창출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Table 6. Organization in charge of each task for Support for performance testing of export-type privately developed equipment

Duty	Organization in charge	
	Before	After(Reform)
Application submission and review	DRATRI	DRATRI
Contract and perform the test supporting	KRIT	DRATRI

3.5 정책적 수반사항

앞서 언급한 개편방안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출연기관을 포함한 방위사업청 등 정부기관의 노력을 통해 훈령 및 운영규정 개정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수출형 개발 지원사업, 마케팅 및 컨설팅 지원사업의 개편을 위해서는 방위사업청 훈령인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 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 등의 개정을 통해 각 사업별 명칭부터 지원내용까지 수정 반영이 필요하다.

DQ마크 인증제도의 전담기관 변경은 별도 규정 개정을 수반하지는 않으나, 방위사업청, 국기연 및 기품원 간의 업무 조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수출형 민간개발장비 성능시험 지원 업무의 전담기관 일원화를 위해서는 국방부의 국방전력발전 업무훈령의 세부 내용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뿐만 아니라, 일관된 업무수행을 위해 각 지원사업의 성격별로 구분하여 방위사업청의 소관부서를 일원화하는 방법 또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현재 개조개발 사업과 부품국산화 개발 등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은 유사한 내용의 관계법령 및 규정에 근거하여 유사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는 사업이지만, 방위사업청 국제협력관과 방위산업진흥국으로 나뉘어서 관리되고 있다. 상위법령 및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 이에 따라 운영규정 등 개정 또한 함께 수반되어야 하나, 소관부서가 달라 동일한 시기에 이러한 변경사항들이 반영되어 일관된 방향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방위사업청과 국기연 등 관련기관에서 수행 중인 방산수출 지원사업의 관계 법령 및 행정규칙

등을 기준으로 각 지원사업별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 분석을 통해 사업간 유사성 등 개편 필요성을 인식하였고, 사업간 정체성 재정립을 통한 유사성 해소 및 지원범위 조정을 통한 지원 실효성 확대 등 전반적인 개편방안 및 정책적 수반사항을 제시하였다.

1. 서론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방위산업 관련 기초적인 기술조차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나, 현재 우리 무기체계는 세계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 수출 추진력을 지속 유지 및 확대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안정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본 연구에서 기술한 방안들이 이에 기여한다면, 정부의 방산수출 200억 달러 및 2027년까지 세계 점유율 5% 목표 달성을 통해 4대 방산수출국 진입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은 대대적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여러 정책 담당부서의 검토 및 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긴 시간이 소요된다는 제한 사항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기업이 체감할 수 있고 실제 성과로 이어지는, 우리 무기체계 수출가능성 및 기업의 수출 역량 확대 방안 등 더욱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References

- [1] W. J. Jang, Analysis of Korea's Defense Export Support System and Future Tasks to Enter the Big 4 of Global Defense Export, KIET, pp.21-33., Sept. 2022.
- [2] MND, Achieve \$17 billion worth of defense export orders by 2022,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c2024 [cited 2024 Feb 1], Available From: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34766> (accessed Nov 4, 2022)
- [3] DAPA, FA-50, signed export implementation contract to Poland, DAPA, c2024 [cited 2024 Feb 1], Available From: https://president.globalwindow.org/kz.info.SupprrtSysDetail.do?supprt_sys_seq=1507 (accessed Sep 16, 2022)
- [4] Yoon Seok-yeol Government's 110th National Policy Project, pp.178, May. 2022. From: <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901283> (accessed June 5, 2022)
- [5] Policy research to establish a basic plan for defense industry development, KIET, Republic of Korea.
- [6] 2013-2017 Defense Industry Development Basic Plan, DAPA, Republic of Korea.
- [7] DAPA, Operation of One Stop One Team to expand

K-defense exports,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c2024 [cited 2024 Feb 1], Available From: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2855> (accessed Feb 15, 2023)

- [8] K. H. Shin, "A study on development plans of R&D supporting project for the Export Revitalization of the Defense Industrie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3, No.9 pp.287-294, Sep. 2022
DOI: <https://doi.org/10.5762/KAIS.2022.23.9.287>
- [9] Regulations on the operation of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support programs, DAPA, Jun. 2022.
- [10] J. J. Jeong, STX Engine launches export-type towing sonar system modification and development project worth 'KRW 11.4 billion', Dailian, c2024[cited 2024 Feb 1], Available From: <https://www.dailian.co.kr/news/view/130955> (accessed Dec 22, 2023)
- [11] Common operational regulations for defense industry development support programs, DAPA, Aug. 2023.
- [12] Common operating regulations for support projects for entry into the defense industry, DAPA, Aug. 2023.
- [13] Regulations for the Operation of the DQ Mark Certification System, DAPA, Jun. 2023.
- [14] 2023 DQ CERTIFIED PRODUCTS, KRIT, pp.25.
- [15] Defense Power Development Operations Order, MND, Sep. 2023.

김 영 강(YoungKang Kim)

[정회원]



- 2019년 8월 : 가톨릭대학교 국제 통상학과-경제학과 (국제학사-경제 학사)
- 2019년 8월 ~ 2020년 12월 : 국방기술품질원 연구원
- 2021년 1월 ~ 현재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연구원

<관심분야>

국제통상, 방위산업, 무기체계 개조개발

박 정 운(JeongWoon Park)

[정회원]



- 1993년 2월 : 성균관대학교 기계공학과 (공학사)
- 2020년 8월 : 창원대학교 기계설계학과 (공학석사)
- 2018년 8월 : 광운대학교 방위사업학과 (박사과정 수료)
- 1993년 4월 ~ 2020년 12월 : 국방기술품질원 책임연구원
- 2021년 1월 ~ 현재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책임연구원

〈관심분야〉

군사학, 방위산업, 무기체계 개조개발, 부품국산화

이 다 현(DaHyeon Lee)

[정회원]



- 2018년 8월 : 부경대학교 화학공학과 (화학공학사)
- 2020년 9월 ~ 2022년 1월 : 국방과학연구소 기술원
- 2022년 1월 ~ 2023년 6월 : LIG넥스원 연구원
- 2023년 7월 ~ 현재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연구원
- 2024년 3월 ~ 현재 : 부산대학교 기계공학부 대학원 석사과정(제어자동화시스템 전공)

〈관심분야〉

군사학, 방위산업, 무기체계 개조개발